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연기... "중단된 시스템 복구 먼저"

사용료 미지급에 전산 시스템 중단
구체적인 채권 규모 아직 미확정
성정, DIP 제도 통해 운영자금 대어

이스타항공의 매각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산 시스템(ERP)의 재가동이 이뤄져야 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발산역 근처 쿠쿠마곡빌딩에 새 사무실 계약도 마쳤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사무실의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면 사무실 입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지난달 24일 성정과 본계약(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채무 상환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정이었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의 중단 등으로 이 같은 회생계획안 제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아직 구체적인 채권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스타항공이 당초 사용하던 전산 시스템이 사용료 미지급으로 인해 중단됐기 때문이다. 정확한 채권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전산 시스템 내 자료와 비교해보는 대사 검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채권 규모가 확정돼야 관계인집회도 열 수 있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 채권의 담감 비율이 정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회생 채권은 1,850억 원, 퇴직금 및 체불 임금 등 공익 채권은 800억 원이다. 다만 향후

대사 검증에 따라 최종 채권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성정도 아직 인수 금액 1,100억 원 전액을 납입하지 않았다. 인수 금액은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직 관계인집회 일정을 정하지 않아 정확한 납입 기한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전체 금액의 약 10%인 계약금은 납입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성정에서 빌린 자금으로 재운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OC 재발급을 준비 중이다.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AOC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전 노선의 운항을 잠정중단하며 AOC 효력이 정지됐다.

이스타항공은 매각 일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올해 10월 김포-제주를 첫 노선으로 재운항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정이 일부 지연되면 늦어도 연내 재운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운영 자금은 성정으로부터 나왔다. 성정은 이스타항공에 운영비 명목으로 DIP(기존 관리인 유지) 제도를 통해 일부 자금을 빌려줬다. 이스타항공은 해당 자금을 AOC(항공운항 증명) 재발급, 사무실 계약 등에 사용하고 있다. 해당 자금은 납입된 계약금과 별개다.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전산 시스템 문제로 정확한 금액 산출이 안 되는 채권이 있다. 8월 중에는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삼성엔지니어링, '그린 암모니아 연합' 결성 SK실트론, 美 반도체 시설에 3억달러 투자

국내 18개 기관·기업, 협의체 협약
정보교류·기술개발·표준화 협력

삼성엔지니어링이 국내 기관·기업들과 손잡고 그린 암모니아 산업의 첨병 역할을 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5일 국내 18개 정부기관, 기업들이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삼성엔지니어링 최성안 사장 등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는 18개사의 최고경영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는 해외 그린수소 도입에 기반한 한국의 그린 암모니아 가치사슬 구축 및 확대를 위해 협력하게 됐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수소는 부피가 아주 크고 폭발성이 강한 데다 액화를 위해서는 극저온(-253℃)에서의 냉각이 필요해 이송과 저장이 까다롭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합성이 용이하고 이송이 쉬운 암모니아로 변환하는데,



삼성엔지니어링이 건설한 사우디아라비아 마덴 암모니아 플랜트.

그중에서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한 그린 수소를 변환한 것이 그린 암모니아다. 협약 당사자들은 생산·이송·추출·활용 등의 각 분야에서 그린 암모니아 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교류와 기술개발, 표준화 협력, 국제교류 추진 등에 협력하게 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합성과분해 등 암모니아의 변환 분야에 있어 기존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중동과 중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수많은 중대형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 건설 경험을 통한 기술과 노하우

를 보유하고 있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라이선서(기술선), 글로벌 에너지·화학 기업들과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탄소중립과 수소 분야의 사업 확장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암모니아 활용 뿐만 아니라 해외 수소 프로젝트 개발과 투자, 수소에너지의 활용, 탄소의 포집 및 저장·활용 등 수소에너지의 이용과 탄소중립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수지 기자

미국 미시간주 공장 부지 증설

SK실트론이 미국에 3억달러(한화 약 3500억원)를 투자하며 현지 차량용 반도체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15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SK실트론은 미국 미시간주 공장 부지 증설 계획을 밝혔다.

이 공장은 약 1만3000㎡ 부지에 차량용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 제조를 위해 조성된다. 인력도 150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SiC 웨이퍼는 SiC 전력 반도체를 만

드는데 사용된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전기차에 필수 요소로 평가받는다. 전기차 충전 속도를 줄이고 주행 거리를 늘리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는 전세계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따라 미국이 공급망 확보에 나선 상황, 현지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SK실트론은 국내 유일한 웨이퍼 제조 업체로, 2019년 듀폰 SiC 사업 부를 인수하면서 미시간 공장을 확보한 바 있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일렉트릭, 친환경 전력기기시장 공략

브랜드 '그린트릭' 론칭

현대중공업그룹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이 친환경 전력기기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일렉트릭은 친환경 전력기기 브랜드인 '그린트릭'을 론칭하고 이달 말부터 출하되는 제품에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린트릭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전력기기를 뜻하는 '일렉트릭'(Electric)의 합성어이다.

현대일렉트릭은 독자기술로 개발한 친환경 제품의 전 라인업에 신규 브랜드를 적용함으로써, 전력기기시장에서 '친환경 기술 우위'라는 이미지를 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트릭 브랜드가 우선 적용되는 제품은 현대일렉트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환으로 개발해 온 ▲170kV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온실가스 배출량 99.2% 저감) ▲친환경 절연유 변압기 ▲엔진 일체형 축발전기 등 3가지 친환경 제품군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중립 선언 및 신(新)기후변화체제 출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에 따라 친환경 전력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양성운 기자 ysw@

에쓰오일

무재해 800만인시 달성

에쓰오일이 1980년 울산공장 가동 이후 처음으로 지난 9일 무재해 800만인시를 달성했다.

에쓰오일은 15일 이와 관련 이번 기록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총 627일 동안 상해사고 뿐만 아니라 화재, 폭발 등의 물적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후세인 알 카타니 CEO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목표가 반영된 안전관리 시스템이 울산공장 전체에 뿌리내린 결과로 평가된다. 카타니 CEO는 안전 문화 증진에 힘쓰고 있다. /김수지 기자



LG전자에 따르면 스탠바이미는 화면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다.

/LG전자

LG전자, 신개념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공개

LG 스탠바이미, 무빙힐 장착

LG전자가 신개념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을 출시한다.

LG전자는 15일 기존 TV와 차별화된 LG 스탠바이미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전국 11개 LG베스트샵에서 제품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예약판매가 시작한다.

LG 스탠바이미는 제품 하단에 무빙힐이 장착된 무빙스탠드 디자인이 적용됐다. LG전자는 LG 스탠바이미가 침실·부엌·서재 등 원하는 곳으로 옮겨가

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장 배터리를 탑재해 전원 연결 없이도 최장 3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LG 스탠바이미의 인체공학 디자인도 특징이다. 27인치 화면은 ▲스위블(화면 좌우를 앞뒤 각각 65도까지 조정 가능) ▲틸트(화면 위아래로 각각 25도까지 기울기 가능) ▲로테이팅(시계 및 반시계 방향 각각 90도 회전 가능) 등으로 움직일 수 있다. 높이도 최대 20cm 내에서 조절할 수 있어 소비자가 시청 자세에 맞춰 화면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한창대 수습기자 cdl@